

4 종합

위조 공결 보도 뒤 달라진 병결 검토 학교 “추가자료도 확인”

천유정 기자 estherchun0007@khu.ac.kr

【국제】지난달 30일 위조 진료확인서 공결 신청 보도 이후 우리학교가 교강사를 대상으로 병결 증빙서류 검토 강화를 요청했다. (관련 기사: 위조 진료확인서로 공결 신청... 학내 유포 정황도 대학 징계·형사 처벌도 가능... 처벌전 첨부 등 보완 필요/대학주보 1758호/2026.03.30.)

교무처 학사지원팀은 단과대학 및 교강사를 대상으로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증빙서류 검토 철저 요청’이라는 내용의 업무연락을 발송했다. 학사지원팀은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인적 사항, 병명, 진료 일자, 발급 일자 등 기재사항과 출석인정 신청 기간 및 사유가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조 의심 사례의 경우 진료확인서 외에도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단과대학 행정실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일부 교수들은 병결 서류를 이전보다 면밀히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조운

아(국어국문학) 교수는 “보도 이후 주변 교수들도 출석인정서류와 관련해 최근 문제된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제출받던 진료확인서 외에도 처방전이나 약국 조제내역서, 영수증 등의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료 내역이나 병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서류는 반려하거나 재발급본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후마 최명정(국어국문학) 교수 역시 “기사를 본 뒤 기존보다 병결 서류를 좀 더 꼼꼼히 확인하게 됐다”며 “학생들도 관련 상황을 알고 있는지 전과는 달리 서류를 손에 든 채 사진을 찍어 첨부하더라”고 말했다.

반면 모든 학생을 잠재적 부정행위자로 보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후마 이은봉(국어국문학) 교수는 “한두 명의 학생 때문에 모든 학생을 의심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며 “보도 이후 병결 서류를 예전보다 꼼꼼히 살펴보게 됐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학사지원팀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한 별도의 추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교직원식당 가격 현실화 서울캠 8,000원 · 국제캠 논의 예정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올해부터 서울캠 청운관 교직원 식당 메뉴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됐다. 국제캠 교직원식당은 아직 변동이 없지만 인상이 불가피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20kg 기준 4만원대였던 쌀값이 올해 61,000원으로 폭등한 게 주된 원인이다. 양캠 학생식당은 인상계획이 없다.

작년보다 1,000원 오른 서울캠 교직원식당은 지난해부터 단계를 거쳐 인상을 했다. 2025년 1학기부터 7,000원 메뉴를 기본으로 하되 주 2회 정도 8,000원 메뉴를 함께 제공했다.

2학기부터는 두 가격의 메뉴를 매일 동시에 제공했다. 올해 1학기에는 7,000원 메뉴가 사라졌다.

국제캠은 아직 7,000원을 유지 중이다. 생협이 독자적으로 가격을 관리하는 서울캠과 달리 국제캠은 식당운영위원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달 말 학식 변동사항에 대해 생협과 식당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가격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쌀값이지만 그 외의 원재료비 역시 대부분 올랐다. 식용유 7%, 맛김치 14%, 계란 15%, 닭고기 16% 등 품목별로 작년 대비 7%부터 24%의 인상률을 보였다.

생협 김민화 사무국장은 “쌀은



올해부터 서울캠 청운관 교직원 식당 메뉴 가격이 8,000원으로 인상됐다. 학생식당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사진=대학주보 DB)

매일 나가야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순 없다”며 “지금 단가로는 국제캠 식단 짜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7,000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메뉴의 한계가 있다 보니 국제캠 교직원들이 학생식당을 선택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격 인상이 있어야 교직원식당 퀄리티를 다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캠 교직원식당은 두 개의 메뉴가 나가는 반면 메뉴가 하나인 국제캠은 단계적 변화가 비교적 어려운 상황이다.

김 사무국장은 “서울캠처럼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을 수 있을진 아직 알 수 없다”며 “식당운영위원회와 회의를 해봐야 언제 얼마나

울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만 운영 중인 교직원식당 식사는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나고 있다. 손익을 맞추기 위해선 하루에 77명 정도가 이용해야 하지만 수요는 부족하다. 김 사무국장은 “구성원들을 위해 계속 운영하고 싶지만 적자 운영을 유지하는 게 맞진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학생식당은 아직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 양캠 학생식당은 현재 다양한 메뉴가 5,800원에서 7,500원까지의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학생식당은 조금씩 계속 변동을 주는 게 가능하지만 문제는 고정가로 운영하는 교직원식당”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여름학기 경희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경희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프로그램 “現場Go就”는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는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사전 훈련의 기회를, 참여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입니다.

- 실습기간 : 2026.06.23.(화) ~ 2026.08.31.(월) 단기현장실습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절차

구분	기관신청	학생신청	기관선발	학과심사
1차	2026.04.06.(월)~ 2026.04.17.(금)	2026.04.23.(목)~ 2026.04.29.(수)	2026.05.04.(월)~ 2026.05.11.(월)	2026.06.09.(화)~ 2026.06.10.(수)
2차	2026.04.27.(월)~ 2026.05.08.(금)	2026.05.15.(금)~ 2026.05.21.(목)	2026.05.26.(화)~ 2026.06.01.(월)	

■ 실습기관 참여기준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수립(별지1호 서식)운영
- 전체 실습시간의 10%이상 25%이하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교육시간 반영하여 운영
-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보장 및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 설비 · 물품 제공
- 신규 참여기관의 경우 서면점검서 제출(매뉴얼 1호 서식), 추후 현장점검 예정
-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부여 및 관련된 교육, 지도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 · 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를 배치
-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산재보험가입 후 가입증명서(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1주일 이내 학교제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내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 명부신청”에서 발급 가능

■ 학생 참여기준

- 현장실습 진행학기 기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 다만, 휴학생의 계절수업 허용범위 내에서 단기현장실습은 휴학생도 신청가능
- 졸업예정자(4년제 기준 8학기 재학생) 단기현장실습 참여 불가
- 졸업유예자 참여불가 • 유학생은 체류관리지침이 허용하는 범위 내 참여 가능
- 실습기관에서 선발이 완료되면, 사전교육 이수 및 3자협약 후 현장실습 진행가능

■ 문의처 : 현장실습지원센터(<http://intern.khu.ac.kr>)

- 서울C: 02-961-2352 • 국제C: 031-201-392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